

## The Key X.

### 목마름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 예배하라.

#### (1)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소개한다. 왜 이 일이 중요할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이다. 근원과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원과 근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근원은 '됨됨이'를 의미한다. 기초가 되는 것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올린 모든 것이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이다.

얼마전 있었던 포항의 지진을 보라. 왜 주민들이 멀쩡하게 살고있던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가?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았어도 가장 기초가 되는 '땅'이 흔들려 버린 지금, 더 이상 안정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본은 '터'에 관한 것이다. 인생이란 구체적으로 터를 닦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살기좋은 안정된 '터'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끝없이 안정된 터를 찾아 이동했고, 때로는 힘을 사용해서 터를 빼앗고 빼앗기는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난 것이다. 기초 자체가 불안하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태계' 또한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안정한 곳'을 찾는 것이고, 그로인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인간'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안정된 터'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 하도록 창조하셨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이다. '하나님이라는 안정된 터' 위에서 인간은 충만하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이 땅에 '의미'있는 일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안에 형성된 '관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전인류의 대표성이 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유는 분명하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다"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갈망하여 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절대 권력의 왕이었다.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 구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다.

[시편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누렸던 모든 소유의 의미는 시편 27:4절에 있다. 그 중심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다윗의 고백은 '중심'에 관한 것이다. 그 마음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다윗은 권력에도, 재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번 다윗의 마음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인이 들어왔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여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갈망이 들어왔을 때, 다윗의 모든 안정되었던 삶은 순식간에 거짓과, 죽음과, 살인, 음란으로 흔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있다.

## (2) 다른 것을 구하는 헛된 인간의 갈망

이런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다른 갈망이 '선악과' 사건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함으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겼던 어리석음이 바로 '죄성'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볼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갈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은 '간음'과 같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가장 소중한 절대적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 안에 다른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이 충격적인 마음이 인간의 첫 번째 최악의 마음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함으로 행복과 만족을 찾는 인간의 마음이, 폭풍이라는 고난이 찾아오면 없어지게 될 모래위에 지은 불안한 집이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갈망하는 존재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물리적인 한 공간에 살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원하는 이중적 마음인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의 물리적 공간이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존재를 통한 만족을 꿈꾸고 있다면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에덴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 의미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인간들과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함께 동거 할 수 없었다.

## (3) 인간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망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적 본성안에 '갈망'과 '목마름'을 남겨 두셨다. '갈망'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에게 있는 창조적 본성이다. 비록 그 창조적 본성이 오염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안에는 '목마름'과 '갈망'을 남겨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안에 있는 갈망과 목마름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결국 아버지를 찾았던 목마름, 아가서의 신부가 없어진 신랑을 찾았던 목마름,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했던 목마름, 다윗이 광야의 고난가운데 있을 때 원수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기다렸던 목마름, 욕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렸던 목마름, 엘리야 시대 때 가뭄으로 해갈의 비를 기다렸던 목마름, 예수님 당시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뵈기를 간구했던 목마름, 예수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을 찾아 무덤을 홀로 찾아갔던 마리아의 목마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있는 것은 '목마름'에 대한 문제이다.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리고 목마름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반드시 해갈을 맛보게 한다.

## 2. 목마른 여인

### (1)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그래서 중요하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방문한 곳이,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수가성 여인' 이었다는 것이다. 목마른 인생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여정안에 많은 비밀이 있다. 수가성 여인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고단한 인간의 삶을 보여준다. 열심히 행복을 찾아 노력했지만 결국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었던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수가성 여인도 결혼하기 전 행복한 삶을 꿈꾸었을 것이다. 인생의 청사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그렸던 그림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였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다른 행복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결론은 첫 번째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그대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기에는 모든 것이 억울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남편을 찾았고 만났을 것이다. 두 번의 아픔이 있었기에 세 번째는 남다른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원점의 실패로 돌아왔다. 결국 다섯 번째 남편까지 찾았으나 그녀가 그렸던 행복은 없었다. 그녀에게 남편은 어떤 의미일까? 실패를 거듭해도 다섯 번째 남편을 얻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에게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여전한 갈망이었을 것이다.

## (2) 미련 - 어리석은 마음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가성 여인의 남편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 마음안에 내 만족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존재나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마음은 인류최초 하나님 외에 다른 갈망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안에 있었던 죄성과 같은 갈망이다. 죄성이 가져오는 어리석음은 한 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다. '아쉬움'이다. '미련'이란 무엇인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의 어리석음은 한 번의 실패에 있지 않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는 마음에 있다. 실패를 했음에도 그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 있다.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미련'은 그릇된 갈망과 욕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생성소와 같다. 그래서 미련이 있는 마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출발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미련의 마음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지향적 이기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미련이 가득한 마음의 특징은 언제나 후회로 가득하다. 후회는 예전 잘못에 대한 아쉬움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된다. 후회가 많은 인생을 보라. 무거운 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죄책감, 자기비하로 가득하다.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보라. 후회가 가득한 삶이다. 다섯 남편이나 얻었으나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4:16-18]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에 대하여 질문하신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이다. "내 삶은 광야와 사막처럼 풀 한포기 찾아볼 수 없는 가뭄의 땅입니다. 사막처럼 타들어 가는 목마름의 고통만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맞다, 네 인생이 목마르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 고 말씀하신다.

## (3) 목마름

우리 인생도 이와같다. 인생은 '목마름'에 대한 대답이다.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다. 목마름은 행복을 향한 갈망과 같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은 이유는 하나이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4:14-15]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전히 모든 인간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는듯한 목마름이 결국 하늘을 열게 한다. 오늘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하늘이신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 오게했다.

신앙은 '목마름'에 관한 것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처럼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다시는 해갈되지 않는 찰나적인 이 우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 3. 하늘문을 여는 예배

#### (1) 하늘문을 여는 자

예수님은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이 있는, 하늘문을 여는 통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23]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은 여인이 알고 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다(20절).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21절). 예루살렘은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이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올려지고 있지만 그 예배에는 ‘신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이다. 무슨 말인가?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망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모인 예배이다. 그들에게 다른 갈망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종교적 예배가 하늘 문을 열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에게 오셨다. “여인아 네 인생 가운데 있는 타는듯한 목마름이 결국 예배”이다. 목마름은 ‘진실됨’이다. 실제로 인체의 70%가 물이다. 물은 생명을 뜻한다. 결국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 갈증’이다. 배고픔도 목마름에 비할 수 없다. 그래서 목마름은 오직 하나 ‘물’만을 구하게 한다. 다른 어떤 음식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물’이다.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신령과 진리’의 마음, 즉 정직한 마음이다.

#### (2) 예배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자’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란 무엇인가? 죄짓기 전의 아담이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아담의 마음이 예배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다. 목마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하늘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사랑의 목마름이다.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목마름이다.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예배를 회복하자. 모든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열쇠이신 하나님을 만나자. 하늘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목마름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그 사람이 ‘예배자’이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자. 그리고 그 곳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자.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예배만이 답이다. 우리의 궁극적 정체성이 예배자임을 기억하여 나아가자.

#### (3) 목마름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는 모든 세상의 가치가 재정립 되는 곳이다. 하나님만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나는 곳이다. 그분만이 내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되는 곳이다. 목마름이 있는 광야로 나아가라. 그리고 광야의 예배를 드리라.